

시론



강 동 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사)생명존중 지구촌 연대 뇌건강 치과 시 연구소 대표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초연결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역사적으로 더욱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고독한 약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GPT-5 테스트 과정에서 드러난 ‘초지능 인공지능’의 자기 결정권이 확인됨으로써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초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의 윤리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초지능 AI의 무분별한 개방을 우려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수단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보편적 사랑’이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소설 『자기 앞의 생』은 사랑이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입과 혀를 통해 발현되는 진실한 ‘말’의 보편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고독한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은 침묵을 깨고 말을 거는 일이다. “내 문을 두드려줘서 고마웠어.” “문을 열어줘서 고마웠어.”

이 대사는 올리버와 클레어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을 나타낸다.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클레어와 올리버는 서로 망설이며 묻는다.

클레어 “나랑 같이있는 게 어색하고 좀 이상해.”

올리버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지?”

이 짧은 문장에는 불안, 기대, 설렘, 두려움이 공존한다. 인간처럼 감정을 학습해 가는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 XVII

-고독한 약자들의 보편적 사랑 이야기(II)

로봇의 첫 고백은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다. 이 장면은 인간이 말문을 열 때 뇌 속 편도체(감정), 전측 대상회(공감), 브로카 영역(언어 생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과정을 상징한다. 말하기는 뇌와 입의 정교한 협업이며, 고독한 자들이 관계를 여는 데 핵심적인 상호작용이다.

『자기 앞의 생』 후반부에서 어린 모모는 병든 로자 할머니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간병하며, 조용히 말한다.

“이젠 내가 로자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사랑은 지키는 거니까요.”

이 고백은 단순한 보호 본능을 넘어선다. 이타적 사랑은 내측 전전두엽과 시상하부(옥시토신 분비)를 활성화하며, 이는 애착형성의 핵심 기제다. 모모의 ‘지키는 사랑’은 고독과 불안을 극복하는 뇌의 사회적 진화를 상징한다.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올리버와 클레어가 기억을 공유하며 나누는 대사는 시와도 같다.

클레어: “나는 왜 슬퍼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올리버: “그건... 네가 행복했기 때문이야.”

클레어 “사랑이란 슬픔이었나요? 후회였나요?”

올리버: “아니, 사랑은 너의 모든 감정이었어.”

이 시적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며, 측두엽(청각·언어), 전두엽(감정 조절), 입과 혀, 턱, 구강 근육의 감각운동계를 복합적으로 활성화한다. 말하고 노래하고 대화하는 순간, 입은 시를 쓰는 펜이 되고, 말은 사랑의 언어로 가공된다.

뮤지컬과 소설 속 고독한 인물들은 공감을 통해 사랑을 실현한다. 이는 거울 뉴런 시스템의 작동이다. 표정과 목소리를 보고, 듣고,

따라 하며 감정을 ‘모방하고, 이해하고, 공유’하게 된다.

올리버와 클레어는 인간을 흉내 내며 감정을 배우지만, 점차 그들 고유의 감정으로 변화시킨다. 모모는 로자에게 배운 공감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정서 모방은 사넵스 가소성을 통해 진정성으로 전환된다. 반복되는 정서 경험은 뇌 회로를 새롭게 구성하고, 약자의 뇌는 사랑을 통해 새로운 운명을 맞이한다. 이것이 ‘약자의 뇌는 사랑을 통해 재구성된다’는 치유의 메커니즘이다.

사랑은 말과 노래, 먹기와 숨쉬기, 입맞춤과 미소로 표현된다. 이 모든 행위는 구강-안면 근육과 감각신경의 정교한 협업이며, 인간 존재가 얼마나 입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의사는 단지 치아와 잇몸이 아니라, 먹고 말하고 사랑하고 상실을 겪은 인간의 서사 전체를 만난다.

고독한 약자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뇌건강 치과학은 ‘인간 존재의 회복’이라는 문화적·심리적 관점을 품게 된다. 이는 단지 기능적 치료를 넘어, 말하고 사랑하는 뇌-구강 시스템을 회복하는 ‘뇌건강 인문 치의학’의 미래를 제시한다.

사랑은 종종 말보다 깊고, 때로 말로 밖에 표현되지 않는다.

고독한 약자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언어다. 그 언어는 입으로 전해지는 기억이며, 뇌에 새겨지는 감정이다. 앞으로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은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회복시키는 고독한 인간 존재의 회복을 위한 심리적·사회 문화적 치료학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칼럼



임 우 진

민선6기 광주 서구청장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공식화 했다.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는 ‘경축식’ 외에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거행한다. 국민주권은 제한 당시부터 우리 헌법에 규정된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임에도, 새 정부를 굳이 국민주권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의 의미를 존중하고 실현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는 제한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를 제도화한 분권형 국가운명을 채택하고서도 지금도 실질적 분권국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쇠퇴로 인한 격차와 비효율은 심화되고, 일상의 생활민주주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는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 성숙된 민주국가로서의 위상확립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은 종래의 국가(중앙) 또는 관 주도의 권력을 분권과 자치를 확대해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지방이나 민이 국가(중앙) 또는 관과 대등하게나

국민주권정부의 자치분권정책

우위의 입장에서 협력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국가경쟁원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관은 행 재정적 권한을 지방과 민간에게 실질적으로 이양하고, 지자체는 의정활동 등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확대된 권한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과감한 자치개혁으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자치의식과 역량을 높여 가야 한다. 또한 특별지자체 정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 경찰 자치 일반자치 통합, 광역시와 인근 도의 통합, 기초자치의 근린자치 여건 정비 등 지자체의 지역 통합적인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치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처럼 자치분권은 지방과 민간에게 과감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 주고, 지방의 역량과 책임성을 높여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치분권 과제들은 그동안 왜 잘 실현되지 못했는가? 이러한 자치분권 노력을 저해하는 환경요소, 제약요소를 찾아서 제거해 주지 않으면 자치분권은 성숙해갈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의 자치분권과 실질적 민주주의 성숙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지역 독점적 양당구조의 고착화에 따라 중앙의 거대양당이 지방정치와 자치를 지배하고, 영호남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정치적 기득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용성을 쌓고 있는 양당구조가 자치분권의 제도화를 어렵게 하고, 미흡하게나마 제도화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성숙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정당공천제가 문제의 개선을 어렵게 엮어매

고 있는 쇠사슬이다.

또한 정당과 정치권은 지방정치와 자치에 개입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민주적 성숙을 발목 잡고,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야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예도 많다. 이처럼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지방정치와 자치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치분권의 성숙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비판하고 요구하기 전에는 민주적 발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행태여서, 자치분권의 성숙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숙제가 돼 있는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를 배제하거나 유지하려고 한다면, 중대선거구제, 지역정당제 등을 포함한 경쟁적 정치구조로의 개혁,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기득권 축소 등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자치분권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우리 민선자치 30주년, 주민자치 도입 25년이 됐지만, 정치적 환경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성숙발전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3년 주민자치를 좌파들의 세력확대 수단으로 본 윤석열 정부의 말살정책으로 주민자치는 완전히 방향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시기에 진정한 국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분권의 성숙발전 계기를 마련하려는 국민주권정부의 책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주권정부답게 자치분권 정책의 실효성있는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社說

광주 위안부 피해 공개 시민참여형 광복절 깊은 울림

‘용기와 연대로 되찾는 빛, 평화를 밝히다’를 주제로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가 13일 전일빌딩2459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미처 몰랐던 광주지역 위안부 강연, 주제 영상 ‘인공지능(AI)로 복원된 소녀들’, 피해자 이름 부르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광주시가 위안부 피해 흔적찾기를 통해 새롭게 피해 사례를 발굴해 주목받는 것이다. 지난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공공역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로 13명의 구술자료와 동원 경로 등을 확인했다.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집단 동원돼 위안부를 강요당한 경우 4건을 확보했으며, ‘일제가 어린 소녀나 과부를 전쟁터로 보낸다’는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명목으로 형사 처벌했던 기록도 7건이나 됐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뒀다. 정부는 당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으로 주권을 되찾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대축제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는 태극기를 형상화한 세 가지 크기, 200개의 바람개

비로 꾸민 가로 45m·폭 5m·높이 6m의 ‘태극기 언덕’을 선보인다.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확인한 자료들도 공개한다. 경기도는 수원 광고청사 1층 로비에서는 독립운동가를 현대미술로 표현한 ‘대한독립’ 특별전을 만날 수 있다. AI 기술로 복원된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비롯해 경기도 선정 독립운동가 80인 관련 영상이 도청사 외벽에 상영되는 미디어아트 쇼도 펼쳐진다.

시민들이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옮기지 느낄 축제의장이 전국에서 수놓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도 시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와 목소리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인권 가치의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족의 자유와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에 전하도록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억하는 교육의 장으로 승화돼야 한다. 올해 기림의 날 행사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

일하는 노인 증가 추세 고용 정책의 변화 고민할 때

광주·전남지역 역시 60대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일하고 싶은 노인’이 늘어난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광주의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7만8천명(경제활동 참가율 47.8%)에 달했다. 1분기(17만1천명)보다 7천명 가량 늘었다. 전남의 경우는 36만4천명에서 37만2천명으로 8천명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용 유망계가 큰 서비스업이 노동시장을 이끈 가운데서도 고령층이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자영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청년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60대 하면 은퇴하고 쉬는 나이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아니다. 청년을 넘어 계속 일터에 남으려 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 낮은 연금 수령액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은퇴자의 능력과 경험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다. 또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고립을 막고 자존감을 회복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일하는 60대가 20대 보다 많다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편입으로 60대 이상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저출생의 영향으로 40대 이하는 줄고 있다.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계속 상승하고 갈수록 더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이 빠진 고용시장에서 대체하고 있지만 저임금 구조에 불안정하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2005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5월 기준 55~79세 경제활동 인구가 전국에서 1천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세대의 60.9%에 달한다.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들이 많다. 청년 연장을 비롯해 고용의 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침묵은 詩

한밤의 트램펄린

남길순



뛰어오르는 자의 기쁨을 알 것 같다

총총 사라진 뒤

뛰어내리는 자의 고뇌를 알 것도 같다

달빛이 해파리처럼 공중을 떠돈다

트램펄린을 뛰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공터에

트램펄린을 뛰는 사람들

트램펄린이 놓여 있고

종아리를 걷은 땀발들이 보이고

속이 환히 비치는 수퍼문이 떠 있다.

(시집 ‘한밤의 트램펄린’, 장비, 2020)

[시의 눈]

현대사회 인간상.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건 트램펄린을 뛰는 사람이 맞다.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뛰어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지극히 고독한 작업을 수행 중인 자들. 그들이 현대인의 또 하나의 초상이다. 어쩌면 시지프스의 바위 굴리기와 흡사한 트램펄린 뛸기. 그것은 시인의 응수감은 사유와 실존적 대응이 있었음을 말한다. 타자와 자아의 부단한 교감 속에서 삶의 속살을 벗겨보이는 언어의 버린 칼끝이 보인다. 뛰고 뛰어보아 제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현대인은 욕망의 뛰기를 멈추지 않는다. 비상과 추락의 거듭된 행위를 통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어렵게 인식한다. 무참히 희망은 찢기고 뜯겨나며 소멸하리란 것을. 헤밍웨이는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존재론적 존엄성을 ‘노인과 바다’에서 설파했다. 자이를 재건하고 고통에 대항하는 존재론적 대응을 뛰는 행위가 암시한다. 홀로 뛰고, 가리었고, 비상하고, 추락하는 필사적 행위는 적어도 한나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중핵고사는 일의 노동당개는 벗어나 있다. 인간의 시간에 영속성을 부여하는 작업단계이거나 인간의 조물적 행위단계쯤이다. 살아있음의 확인을 통해 높은 자원으로 자아를 이끌어가려는 달빛 아래 몸짓이 결연하다. <윤상현·시인>

독자투고

최근 중동 전쟁 등 국제적인 갈등 상황들을 보면 첨단 과학 기술인 AI·드론·사이버 등이 악용되는 새로운 양상 속에 자국의 안보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고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밑거름인 ‘을지연습’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198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2025 을지연습, 국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도입해 금년 57번째를 맞은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올해는 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복합상황 대응의 실제 훈련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

는 훈련도 실시한 만큼, 그 어느때보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배려가 요구된다.

정부, 지자체, 경찰 등 행정 및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금년 을지연습이 온 국민의 비상대비 역량과 안보 의식을 한층 높일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래본다.

<김현철·광주서부경찰서 경비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